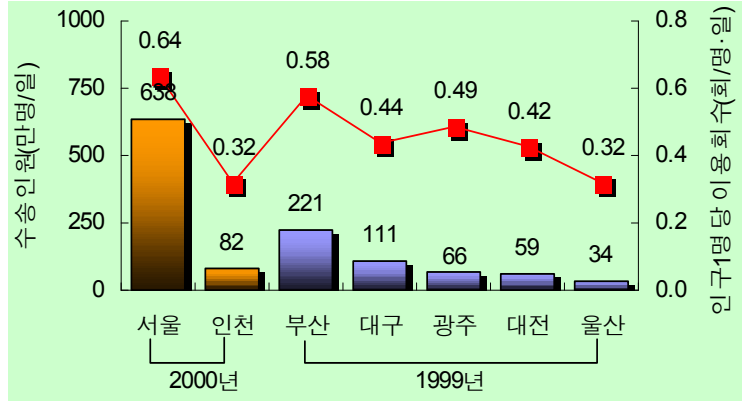


7대 도시의 시내버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 (전국교통DB구축사업의 시행결과 분석자료)

- 시내버스(마을버스 제외)의 평일기준 1일 이용인원은 서울이 638만명으로 가장 많고, 부산 221만명 · 대구 111만명 · 인천 82만명 · 광주 66만명 · 대전 59만명 · 울산 34만명 순이고, 7대도시의 평일기준 1일 시내버스 이용총인원은 약 1,184만명으로 추산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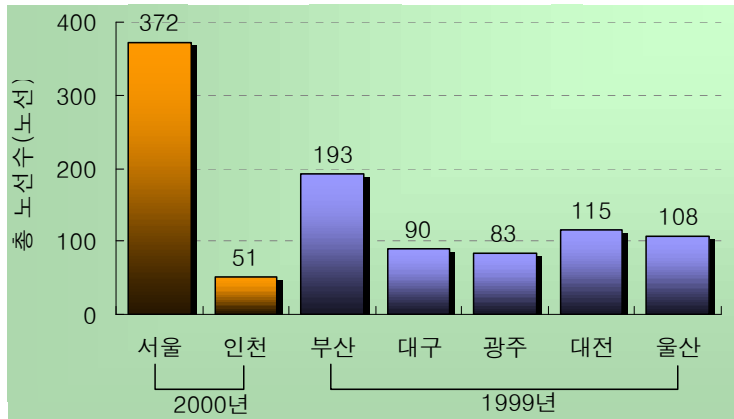
- 건설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과 함께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교통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중에 있는 「전국교통DB구축사업」 일환으로 1999년에 부산 · 대구 · 광주 · 대전 · 울산, 2000년에 서울 · 인천의 시내버스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,

- 인구 1인당 시내버스 이용율은 서울이 0.64회로 가장 많고, 인천과 울산이 0.32회로 가장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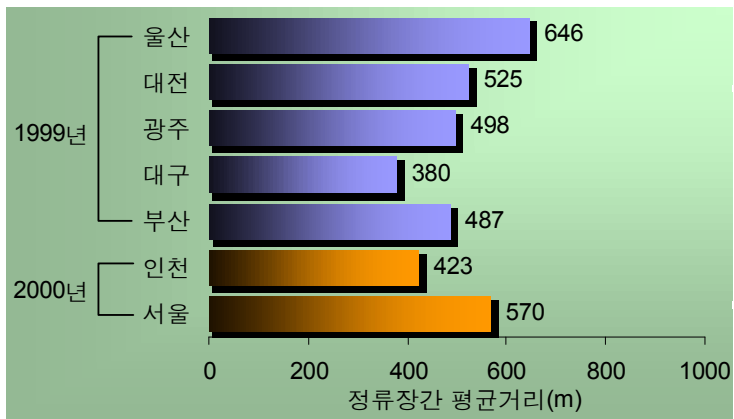
- 7대 도시(서울 · 부산 · 대구 · 인천 · 광주 · 대전 · 울산)의 시내버스 이용실태조사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,

- 시내버스 노선수는 서울이 372개로 가장 많고, 부산 193개 · 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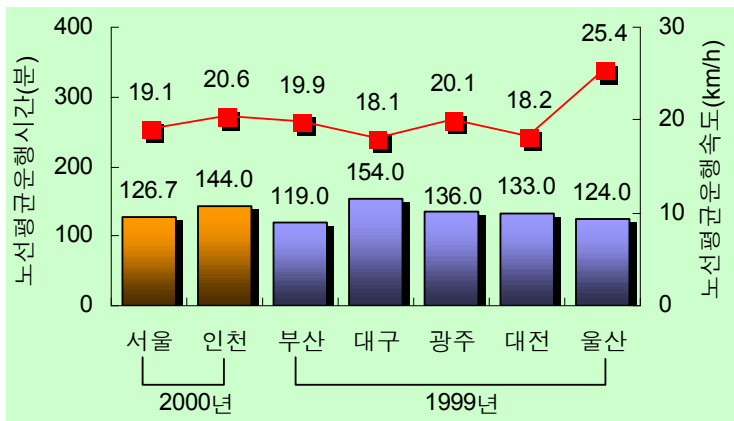
전 115개 · 울산 108개 순이고, 인천이 51개로 가장 적은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
- 또한, 버스 정류장간 평균거리는 대구 380m · 인천 423m 순으로 짧고, 울산이 646m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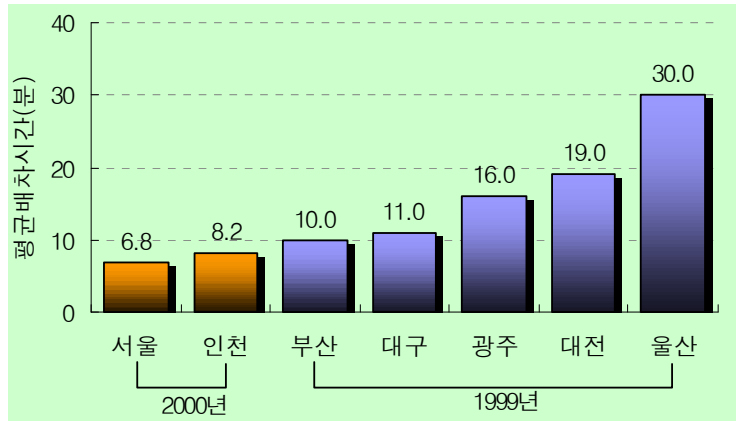
- 1개 노선 운행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평균 약 130분 전후로서, 대구가 154분으로 가장 많이 소요되고 부산이 119분으로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

- 운행속도는 평균 20km/h 전후의 속도로 운행되고 있고, 울산이 시속 25.4km로 가장 빠르며 대구가 시속 18.1km로 가장 느린 등 정류장 수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조사 · 분석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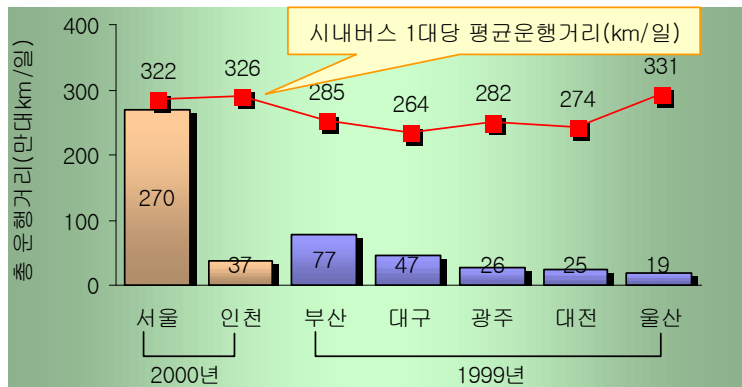
○ 시내버스의 평균 배차시간은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서울이 약

7분 · 인천 8분으로 가장 짧은 반면, 울산 30분 · 대전 19분으로 가장 긴 것으로 파악되었다.



○ 시내버스 1일 총 운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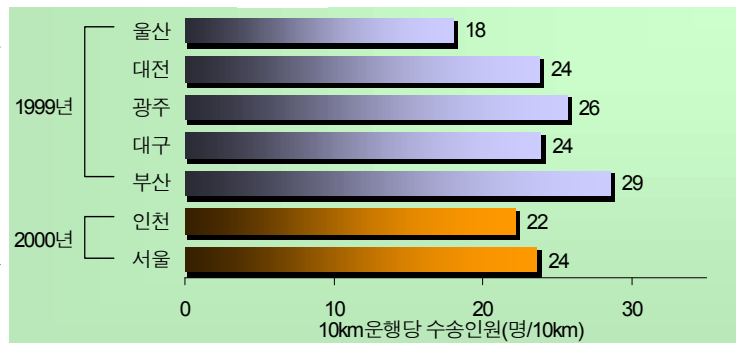
거리는 서울이 270만 km로 최대이고, 울산이 19만km로 가장 적으나, 시내버스 1대당 평균 운행거리는 울산이 331km로 최대이고,



대구가 264km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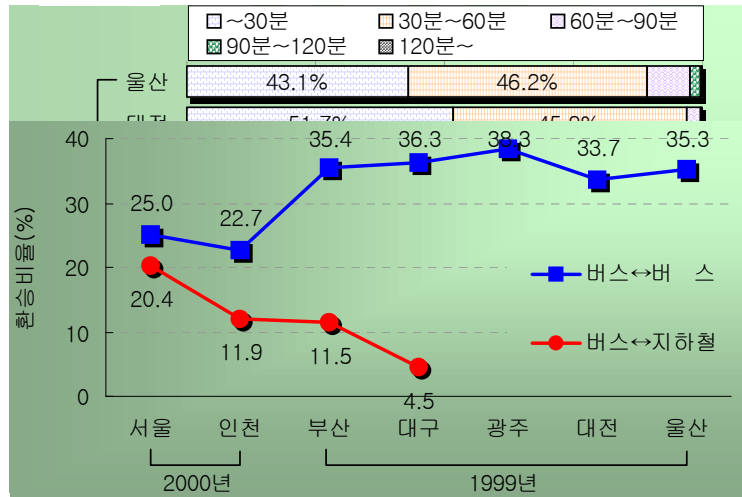
○ 운행거리 10km당 수송인원은 부산이 29명으로 최대, 울산이 18명

으로 최저를 보이고 있으며, 서울 24명, 인천 22명을 비롯해 대도시에서는 약 24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.



○ 시내버스 이용자가 버스를 1회 이용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은 이용자의 절반이 약 30분 이내이며, 특히 서울이 약 70%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1회 이용은 대부분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버스와 버스간 환승비율은 서울·인천이 약 25%·23% 정도인 반면, 5개 광역시는 35% 전후로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은 서울 20%, 인천과 부산이 12% 정도로 나타났다.



- 환승을 하는 이용자의 약 70%는 3~10분 정도를 대기시간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, 서울이 가장 짧은 대기시간으로 환승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「전국교통DB구축사업」의 시행결과로 조사·분석된 7대도시 시내버스 이용실태자료는 대중교통정책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·에너지절약 등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분석·활용되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
- 앞으로 이 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kotidb.re.kr>)·CD 등을 통해 오는 4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.